

# KEPCO E&C KE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 Family

더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건  
남보다 더 성장하고  
완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SCAN ME



QR을 스캔하시면  
원데이클래스, 가족사진 등 사보 참여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 “분초를 다룬다”

살다보면 겪는 시간 중 하나다.

말 한마디에 다급함과 어려움이 느껴지기에  
그런 상황을 겪지 않길 바라는 건 욕심일는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분초를 다루던

‘억겁’의 시간이 지나면 그 끝이 어디에 닿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은 끝이란 게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분초를 다루는 시간과 세상 속에 산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채워야 하는지는

‘나’ 하기에 달렸다. 한국전력기술인들이 보내는 지금이

훗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순간으로 남길 바라며

‘째깍째깍’ 소리에 맞춰 응원을 담아 보낸다.

### 분초사회 ▼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며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소비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2024 MAR+APR Vol. 481

꿈과 자유로 채워지는  
시간의 밀도

4-5

특 맛보기

우리는  
꿈을 찾을 것이다

6-9

통통튀는 특

주어진 시간,  
가치에 대해 더 생각합니다

10-11

통하는 이야기

우리가 만드는 우리만의 시간

12-13

마음고민 상담소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마음가짐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14-15

E&C ON 1

한국전력기술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2위 달성

16-19

E&C ON 2

2023년 한국전력기술 신입사원 교육

20-21

Focus on

한국전력기술 50년 역사 속  
첫 여성 본부장을 소개합니다!



22-25

우리 동호회 어때?

열정 가득한 탁구 한 판 승부

26-31

가족의 기록

지금 그리고  
다시 꺼내 보고픈 순간

32-35

한기 트래블러

우리 가족 최고 여행지,  
뉴질랜드 9박 11일간의 여정

36-39

함께해요

시각장애 아동들이  
점자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40-41

힘하게

참는 건 그만!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42-43

독(讀)하게

앞으로를 위한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

44-45

E&C 뉴스

46

독자마당



통권 481호

발행인 김성암

발행일 2024년 3월 25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메일 miru@kepco-enc.com

기획·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02-786-2999)

우 리 는

꾸 름 을

찾 을 것 이 다



BC 1400년, 고대 이집트인은  
“요즘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다”며 예의 없는 사회를 염려했다.  
그로부터 3400년 가장 지난 현재, 다른 건 몰라도  
인류는 적어도 예의범절 문제로 종말의 위기를 겪진 않았다.  
글: 최만석 에세이스트

1982년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노벨상을 받기 전까지, 서구의 평론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소설은 죽었고, 문학은 위기를 맞았다”고. 한데, 그로부터 42년이 지난 현재, 나 같은 변방 소설가도 삼시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잘 살고 있다.

최근에 듣는 이런 종류의 걱정이 있다. “사람들이 요즘 책은 안 읽고 쇼츠 영상만 봐요, 작가님!” 출판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안 팔리던 제 책은 더 안 팔리겠네요”라며 맞장구친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아쉽지 않다. 사실 나는 내 책이 잘 팔릴 거라는 기대를, 내가 내년쯤에는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 쫘므로 여기니까. 물론, 세속적 욕망을 비웠다는 말이지, 잘 쓰려는 열망을 비웠다는 말은 아니다. 하던 이야기로 돌아오자. 나는 사람들이 긴 책을 읽지 않고 짧은 영상을 본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그 짧은 영상 안에도 서사가 담겨 있고, 그 서사는 대개 압축적인 ‘기승전결’의 형식을 갖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원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소비한다.

왜 많은 이야기 중에 ‘하필이면 쇼츠일까’ 생각했다. 이때 접한 용어가 ‘분초사회’다. 올해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제시된 개념으로, ‘분초를 다룰 정도로, 돈보다 시간에 더 가치를 둔다’는 것이다. 강하게 공감했다. 나 역시 이렇게 지내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기상하면, 따뜻한 물로 기분 좋게 샤워하고, 좋아하는 커피를 한 잔 마신다. 그리고 그날 할 일을 꼼꼼하게 작성한다. 어느 정도나면, 분 단위로 그날 쓸 원고의 목표치를 적어 둔다. 요즘은 취미로 불어와 에스파냐어를 학습하는데, 이 시간 또한 분 단위로 기입한다. 그러니, 사실상 ‘분초사회’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이미 ‘분초 사회형 인간’으로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 역시 긴 영상을 보는 건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영양가 없는 것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것 역시 싫어한다.

한데, 이렇게 시간을 아껴 쓰려는 내 의지는 오히려 ‘아주 긴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었다. 동시에, 매일 한 시간 이상 운동을 꼭 하려는 목표도 품게 만들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대해 근원적인 접근을 하게 됐다는 말이다. 분초를 쪼개어 쓸 만큼 시간이 중요하기에, 역설적으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소요 시간의 분량에 상관없이 더 집중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러다보니,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 있으면, 두꺼워 상관없이 몰입해서 읽는다. 오히려, 그런 책이 있다면, 두꺼울수록 더 좋다.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을 진정 즐겁게 보낼 기회가 늘어난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시간을 예전보다 더 값지게 쓰고 싶기에, 운동에 시간을 더 투자하게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무위의 시간’이다.

‘무위의 시간’이란 말 그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다. ‘분초사회’에서 살다 보면, 불안해서 짧은 시간에도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하고 싶어진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다, 몸과 뇌에 과부하가 걸려버렸다. 그러나, 삶은 결코 단 하루의 결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아주 긴 레이스를 통해서 자기 삶의 색채는 결정된다. 그렇기에, 몸과 뇌를 한동안 죽은 자처럼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흘러가는 구름을 보기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기도 한다. 그렇게 ‘무위의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나면, 방전돼 빨간 경고등이 뜬 휴대폰이 녹색으로 가득 차듯 뇌와 몸이 개운한 상태로 회복된다.

인류는 늘 걱정해 왔다. 그래서 인류는 그 염려대로, 퇴보의 역사를 써온 걸까, 아니면 진보의 역사를 써온 걸까. 모두 각자의 답을 갖고 있겠지만,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 분초를 다룰 정도로 시간에 잠식되는 듯하지만, 결국은 시간의 본질적 가치를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대사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시간에 대한 고민 자체가 결국은 시간을 가장 값지게 쓰는 길로 인도하리라 나는 희망한다. E&C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외치기까지 그 현대사회를 먼저 살아온 선배들이 있다. 그 방식과 모습은 다르지만, 시간의 가치에 대해 먼저 고민한 이들 말이다. 이제는 은퇴를 앞둔 선배를 통해 우리가 더 계발하고 발전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 위에 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김민선 사진. 조병우

## 주어진 시간, 가치에 대해 더 생각합니다

에너지신사업본부 사업개발처장 **최병철**, 에너지신사업본부 융복합사업처 총괄PM **임태식**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병철 처장(이하 최병철)** 에너지신사업본부 사업개발처장 최병철입니다. 한국전력기술에 입사한 지 올해 35년 차이자 시니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임태식 처장(이하 임태식)** 같은 신사업본부 융복합사업처 총괄 PM 임태식입니다. 1992년도에 입사해 33년 차 한국전력기술에 몸 담고 있습니다.

### Q 두 분의 30년의 회사 생활도 분초를 다투는 매우 바쁜 나날이었을 듯합니다.

**임태식** 지난 시간을 물으면 일명 '곤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업무 완수라는 것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 나를 위한 시간 활용은 뒷전이었죠. 조직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첫 아이를 출산할 때 휴가를 내는 것도 눈치가 보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첫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과 둘째 아이 대학교 졸업식 두 번 참석한 게 전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업무 시작 한 시간 전에 사무실에 도착해 일과를 먼저 시작하던 것이 몸에 배어 여전히 7시면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습니다.

**최병철** 저도 마찬가지예요. 7시 출근하는 습관이 여전하죠. 예전에는 8시까지 출근이었고 8시 30분부터 회의가 시작되어서 7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찍 출근해도 퇴근은 같고, 늦은 퇴근 후에도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업무에 몰두하기 일쑤였죠. 임태식 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면 가족을 위한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습니다.

### Q 분초사회 트렌드와 현재 그리고 후배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최병철** 중첩된 생활을 할 만큼 바쁘지만, 워라밸로 삶과 회사 모두 양립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부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업무를 마쳐야 하다 보니 시간 분배나 업무 부담이 우리 때보다 더 커지지 않았을까

66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 존중하고,  
 더불어 챙겨주고 챙김 받는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99



66  
 일과 삶에 밸런스,  
 블렌디드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99

*Time  
 Efficient Society*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동체의 구성  
 원으로서 단합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이 아쉽더라고요.  
 업무로만 소통하다 보니 갈등과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모습  
 을 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끼인' 과장급 세대의 고충  
 도 보게 되었죠.

**임태식** 분초사회라는 트렌드가 2024년에 떠오르긴 했지만  
 이미 비슷한 형식이 진행 중이었고, 심화가 되면서 부각된 것  
 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  
 라 우리의 업무 또한 대면하는 시간과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소통의 방식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Q 은퇴 후 시간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임태식** 그간 독서에 소홀했어요. 새해부터 일주일에 한 권 읽  
 자고 다짐했는데 1월 한 달 동안 두 권밖에 읽지 못했네요. 아  
 내가 독서를 좋아해서 아내에게 책을 추천받아 읽는 중입니  
 다. 가족과의 시간도 더 보내고, 저를 위한 시간도 갖고 싶어  
 요. 저를 위한 시간은 이미 2~3년 전부터 계획해서 시골에 계  
 신 어머니 댁 앞마당 텃밭에 여러 작물을 키우는 중입니다.

**최병철** 남은 2년 동안 후배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2주에 한 번 강의를 하려고 하  
 는데 이때 자료를 공유할 방법을 생각 중이에요. 개인적으로  
 는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여행을 다녀보자는 마음입니다. 여  
 행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생기면 진짜 퇴직 후에는 몇  
 달 살이도 해보면 좋겠네요.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  
 다면요?**

**최병철** 일의 가치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일에 대해 더 자긍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에도 좀 더 집중한다면 일과 삶에 밸  
 런스, 블렌디드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임태식**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 존중하고, 더불어  
 챙겨주고 챙김 받는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회사, 돈  
 을 버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일이  
 나에게도 회사에도 어떤 도움이 될 지 생각하는 한국전력기  
 술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C**



일에 대해  
 더 자긍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에도 좀 더 집중한다면  
 일과 삶에 밸런스, 블렌디드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도,  
저녁을 밝히는 사람도,  
모두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일상의 시간을 더하고 나눠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 가는 우리.

나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모여  
한국전력기술만의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만드는

우리만의 시간



**실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하는 실수들이 조심스럽고, 열심히 하려 하지만  
실수가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 즉, 이번 실수가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한 실수를 보신 선배님과  
고민 상담을 해준 동료들은  
실수나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위로해 주시거나  
실수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따금  
지난 실수가 생각날 때면  
저 자신이 한없이 작아짐을 느끼고  
불안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입사 3년 차에 접어들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수라던가, 지나간 일이나  
작은 일에 쉽게 힘들어지는 것이  
제 스스로 안타깝습니다.  
걱정과 실수에 대한 불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보니 실수나 지나간 일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크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나  
선배님이 해주신 위로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안 좋은 추억은 있지만 안 좋은 경험은 없다!” 돌이켜 보면 실수했던 그  
경험이 이후 다양한 상황에서 긍정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분  
명합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 즉, 이번 실수가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을 의도적으로 암시해야 합  
니다.

불안이란 실패했던 일이나, 창피했던 경험이 남아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며 기억력 감소와 자신  
감의 결여도 가져옵니다. 이런 불안은 다른 부작용들과 함께 두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  
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안의 감정을 지니고 있을 필  
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내면의 마음 그  
릇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 그릇을 키우는 연습 중 추천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워 보는 것’  
입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혹시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아쉽지만 이 또한 나의 좋은 경험의 밑거름이 되는 과정이구  
나”라고 말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며 실제적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명확한 목표와 긍정적 생각을 토대로 한 ‘자기초점주의’라  
는 개념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초점주의는 자기 자신과 자신  
의 경험, 생각, 감정 등에 집중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성  
장과 자기 이해를 촉진하며,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 마음가짐을 기반으로 집중해야 하며, 너무 지나친  
몰두는 스스로에게 해롭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긍정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주변의 자원을 이용해 다양한 생각을 들  
어보며,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자기표현입니다. 자기성찰과 자기표  
현을 통해 자신을 탐구하는 시간을 꼭 마련해 보세요. 그 시간이 명확한  
목표를 선명하게 해주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 또한 함  
께 성장시키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 방패를 스스로 튼  
튼하게 만들어 가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장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E&C**

**유혜리 HR커뮤니케이션 대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인적자원개발(HRD)을 전공하고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서 《잠깐 스트레스 좀  
풀고 올게요》에서 그녀는 스트레스와  
관계 다루기에 대해 강조한다.



##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행복한 일터 만들어요!”

한국전력기술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2위 달성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2월 22일 63빌딩에서 열린 ‘2024년 제22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당당히 2위를 달성하는 기쁨을 토했다. 외국계 기업을 제외한 국내 공공 기관 및 일반 기업체 중 최고 순위다. 행복한 일터 한국전력기술을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인정받은 순간이다.

글 정임경 사진 홍덕선



### 살아 숨 쉬는 즐거운 일터, 한국전력기술

2024년 제22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의 임직원들로 북적였다. 축제 현장을 방불케 한 시상식에서 한국전력기술 또한 김성암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미리 준비한 붉은색 머플러를 하고, ‘살아 숨 쉬는 즐거운 일터’, ‘국내기업 1위’ 등의 피켓을 들고 축제를 즐겼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은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미국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가 주관하고 GPTW코리아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직원 만족과 행복을 기업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구성원들이 자신이 몸 담은 회사의 일하기 좋은 신뢰 정도를 경험 진단 형식으로 직접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전력기술은 직급, 세대 장벽을 허물고 활발한 소통을 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MZ세대 직원들을 주축으로 ‘함께하는 경영소위원회’를 만들어 회사 주요 현안에 대해 격식 없이 의견을 나누며, 부서 및 직종 차이를 이해하고 협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크로스 미팅 제도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점이 돋보였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2위, 한국전력기술’이라고 큰 소리로 호명되자 김성암 사장과 임직원들은 환호하며 무대에 올랐다. 김성암 사장은 “30년, 50년, 100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한국전력기술이 되라는 의미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해 10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2,500명의 임직원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 김성암 사장,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돼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전력기술은 기업 부문 수상 쾌거와 더불어 글로벌 ESG 인권경영 인증을 획득했다. 그리고 개인 부분에서도 김성암 사장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상을, 백경은 회계세무팀장이 대한민국 자랑스런 워킹맘상을, 양원남 인사처장이 대한민국 GPTW 혁신 리더상을 수상해 한국전력기술의 이름을 드높였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상은 선한 리더십과 높은 사명감으로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고 큰 성과를 창출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최고경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자사의 구성원들이 CEO에 대한 믿음과 존중 그리고 공정성 범주의 신뢰 수준을 직접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 가치 있다.

이날 일과 가정이라는 고된 두 업무에도 굴하지 않고 곳곳까지 매진해 타의 모범이 되는 일터의 철인에게 주어지는 ‘대한민국 자랑스런 워킹맘상’을 수상한 백경은 회계세무팀장 또한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백경은 팀장은 “아이들이 수상 소식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회사 전반의 ‘가정이 편안해야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업무에 더 몰입하게 만듭니다. 후배들이 아이 셋을 키우는 저를 보고 ‘팀장을 하면서 집안일도, 양육도 할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한국기술 전력은 살아 숨 쉬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활발히 소통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E&C



Best Workplaces in Korea

# 더 높이, 새롭게, 혁신적으로 밝은 미래를 도모하다!

## 2023년 한국전력기술 신입사원 교육

2023년 한국전력기술 신입사원들이  
첫발을 내디뎠다. 회사 비전을  
내재화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며 각오를 다진 것.  
풍성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교육 과정을 통해  
2024년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약속한 현장을 소개한다.

글: 김주희 사진: 박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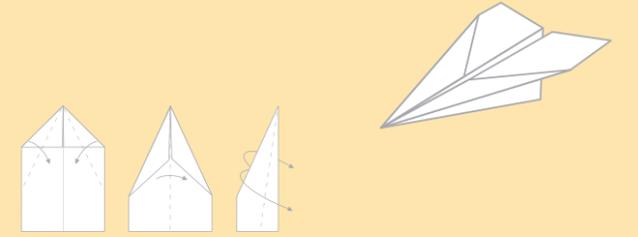
### 나의 성장 열쇠를 찾아서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한국전력기술 신입사원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첫째 날 임용식을 시작으로 팀별 활동 및 CEO 특강, 외부 초청 특강 등 다채로운 면면으로 채워졌다. 신입사원들은 경주에 자리한 한 연수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본격적인 교육에 참여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다. 1주 차에는 'MZ세대의 슬기로운 직장생활', '신입사원의 직장 내 소통 스킬', '이심전심 직장생활 극장' 등을 통해 첫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자신의 미션과 역할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무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도 이어졌다. 2주 차에는 실질적인 업무 스킬을 강화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AI 경쟁력이 필수 불가결한 역량으로 손꼽히고 있다. 신입사원들은 챗GPT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며 AI 기술을 한층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업무의 품격을 높이는 글쓰기', '설득력을 높이는 보고의 원칙', '나의 월급 사용설명서' 등 업무 노하우와 재테크 교육도 진행됐다.

실무 역량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실행력 또한 중요한 법.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더한 액티비티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레고를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가 하면 팀별 활동을 통해 '한기365 캘린더 만들기'에 도전하는 등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완결하는 과정을 통해 팀워크를 고취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실무 역량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실행력 또한 중요한 법.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더한  
액티비티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저마다  
각오와 희망을 담아  
온몸으로 힘껏  
비행기를 날리며  
새로운 미래를 다짐했다.



### 더 멀리, 높이 비상하는 미래를 향해

교육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월 11일에는 특강 '한기 비행기'가 진행됐다.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이정욱 선수가 연사로 나서 '비전을 품고 행하면 기적은 이룬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선보였다. 경북 상주 산골 마을에서 자란 그의 유일한 장난감은 종이비행기였다. 중학생 무렵 TV에서 종이비행기 오래 날리기 부문 기네스 기록 보유자인 켄 블랙번을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종이비행기를 멀리 날리기 위해 항공역학, 유체역학을 공부하는 등 오랜 시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던 대학 시절, 저는 언론고시를 포기하고 종이비행기에 인생을 모두 걸기로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쏟아부으며 국가대표가 되었고 국내·외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조금씩 성취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취미도 충분히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직무와 연계하면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걸 깊이 파고든다면 그 분야의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덕업일치를 이룬 그의 경험담은 신입사원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다. 이어서 도전정신을 체화하는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대회가 열렸다. 비행의 메커니즘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종이비행기를 손수 만든 후 조별로 팀을 이뤄 대회에 참여했다. 단순한 놀이로만 접했던 종이비행기에 과학적 지식과 운동 능력을 더하며 경기에 임한 신입사원들. 저마다 각오와 희망을 담아 온몸으로 힘껏 비행기를 날리며 새로운 미래를 다짐했다.

###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다

워크숍 '취미 R&D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기'도 진행됐다. '덕질'을 자신만의 역량으로 연마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이다. "필기구에 진심인 편입니다. 언젠가 필기구 맞춤 컨설턴트가 되고 싶습니다.", "행사 진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적성과 잘 맞더라고요. 결혼식 사회를 능숙하게 진행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해바라기를 키우면서 꽃을 피우기 위해 한 달간 새벽 6시에 기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덕질 경험을 토대로 식물 키우기의 달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등 귀를 솔깃하게 하는 답변에 서로 응원의 박수를 보내줬다. 마지막으로 이정욱 선수는 신입사원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강연의 끝을 맺었다.

"저는 앞으로도 종이비행기로 희망을 선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에너지로 세상을 더욱 밝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2주 동안 진행된 교육은 신입사원으로 첫 여정에 나선 이들에게 명쾌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뜨거운 열정과 싱그러운 활력으로 무장한 2023년 신입사원들이 회사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구성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C**



취미를 직무와  
연계하면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걸 깊이 파고든다면  
그 분야의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 Mini Interview



권기현  
사원

"이번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스킬과 노하우를 비롯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종이비행기 액티비티와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창의적인 관점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앞으로 근면성실하게 회사생활에 임하면서 우리 회사가 글로벌 리더 기업이 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윤상훈  
사원

"조원들과 달력을 만들면서 협력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어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노하우 또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토목 직군인데, 꾸준히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실히 공부하며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내일을 일구고 싶어요. 1년, 10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진일보하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마성현  
사원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챗GPT를 활용한 문서 작성 팀 등도 유익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조직 안에서 제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선배님 및 동료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혼자 저만큼 나아가기보다 함께 보폭을 맞추며 나아가겠습니다."

# 한국전력기술 50년 역사 속

## 첫 여성 본부장을 소개합니다!



**설영실**  
전력기술연구원장



30여 년간 원전산업계 최전선에서 활약하며 성장해 온 설영실 전력기술연구원장은 지난 1월 한국전력기술의 최초 여성 본부장으로 자리매김하며 한국전력기술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원동력은 늘 생산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의지에 있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탐구하며 온 설영실 원장이 이끌어갈 전력기술연구원의 청사진을 들여다보자.

글: 정임경 사진: 한상훈

**“새로운 도전 앞 과감하게 소신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초의 여성 본부장, 전력기술연구원장, 여성 세 부문의 교집합인 설영실 전력기술연구원장은 “나이 들수록 새로운 도전 앞에 설렘보다는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력기술연구원장으로 과감하게 소신껏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라며 ‘최선’이라는 말에 힘을 실었다.

지난 30여 년간 일하며 마음을 다하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었으랴. 1992년 원자력연구소(KAERI)에서 설계 업무를 맡던 순간부터 원전 설계일이 한국전력기술로 이관돼 한국전력기술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던 모든 순간 온 마음을 다해 일해 왔다.

“30여 년의 직장생활 중 가장 열정적으로 일한 시기가 신고리 3,4호기 기술조정책임자(EM) 및 사업부책임자(APM)로 사업관리를 맡았을 때입니다. 신고리 3,4호기의 토대가 되는 APR1400 개발 업무에 참여한 것부터 2019년 준공까지 관리했습니다. 긴 대장정의 과정이었지요”

당시 발전소 계측제어 설계에 디지털기술 접목 등 수많은 신규 설계가 도입된 만큼 연구하고 소통하며 현안을 해결했다. 다양한 기관 사람들과 일이 얽혀 있는 현장을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이끌었다.

이후 설영실 원장은 2022년 1월 원자력사업 처장으로, 2022년 7월 원자로총괄기술처장

으로 그리고 올해 1월 전력기술연구원장을 거쳐 한국전력기술 첫 여성 본부장 탄생의 주인공이 됐다.

“누군가 여성 임원을 꿈꾼다면 원대한 꿈과 대단한 용기를 지닌 것을 먼저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성으로, 워킹맘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잘 해내겠다는 욕심보다는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추구하다 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직장, 동종 업계에서 동료들 만들어 상황을 공유하고, 공감해 나간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며 같은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선배로서의 조언도 잊지 않았다.

**“자긍심을 갖고, 함께 행복한 한국전력기술을 만듭시다!”**

설영실 원장은 특유의 성실함으로 사내 활동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광폭 행보를 보인다. 대외 활동은 원자력학회에서 원자력계의 현안들을 살피고 또 정부 전문위원으로서 원자력 정책을 검토하며 심의를 포함한 정부 R&D 관련 일을 컨설팅한다. 그리고 IAEA 기술 분과 활동으로 전 세계 전문가들과 각 나라의 기술적 현황을 공유하고, 선진원자로개발 분야의 한국 대표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경수로형 선진원자로 건설 및 운영 R&D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과 관련해 우리 연구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만큼 사업본부들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각 사업 본부의 사업개발 및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임직원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회사는 개인의 역량이 어우러져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내가 있어 성장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꼭 가져 주십시오. 한발 더 나아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한국전력기술을 만들어봅시다.” E&C



절묘하게 Drive, 짜릿하게 Smash!

# 열정 가득한 탁구 한 판 승부

네트 위를 가뿐히 넘어가는 공, 똑딱똑딱 공이 라켓과 탁구대에 닿을 때마다 울리는 경쾌한 소리, 팽팽한 랠리 끝 상대의 허를 찌르는 결정타... 한국전력기술 탁구동호회 회원들은 탁구를 통해 일상에 활력과 에너지를 채우고 있다. 이들이 그간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는 특별한 대결에 나섰다. 그 열정적이고 훈훈한 현장을 함께했다.

글. 김주희 사진. 박진우

## 에너지 가득한 탁구 사랑꾼

평화로운 탁구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선다. 경기복을 입고 탁구대 앞에 선 이들. 스트레칭으로 워밍업을 하는가 하면 머리띠를 두르며 장비를 챙기는 등 결전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한국전력기술 탁구동호회 회원들이 정정당당 실력대결로 팀워크를 다지고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모였다. 한국전력기술 탁구동호회는 1989년 설립된 이후 35년 동안 역사를 이어왔다. 탁구를 통해 직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이다.

"탁구를 좋아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직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50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은 탁구 초심자부터 20년 이상의 경력자까지 다양한데요. 3개월마다 정기전을 개최해 실력을 점검하고, 4강 입상자에게는 점수를 부여하며 탁구 등급을 상향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울곡동내 공공기관 및 김천시 지역 동호회와 교류전도



진행합니다.”

탁구동호회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2003년 노동부장관기 우승, 2005년, 2006년 과학기술부장관기 우승을 비롯해 2019년 김천시장배 우승 등 다수의 수상을 통해 실력을 입증해 왔다.

오늘 대결에 나선 이들은 동호회 회장과 부회장, 총무를 맡은 이덕수 원전안전센터장, 송덕빈 원자력기술실 부장, 손동조 에너지사업개발처 차장 그리고 김상은 원전안전센터 팀장, 박호석 에너지신사업본부 토건기술실 차장, 서재필 원자력사업본부 사업관리기술실 차장이다. 등급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가위바위보로 팀을 정한 결과 이덕수 원전안전센터장과 송덕빈 부장, 박호석 차장의 '청룡팀' 그리고 김상은 팀장, 서재필 차장, 손동조 차장의 'Youngboy팀'의 대결이 시작된다.



# V

PING-PONG



# S

“서로에게  
즐거움과 건강을  
선물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동호회를  
수식하는 말이다.”

### 가장 작은 공이 선사한 크나큰 행복

경기는 단식과 복식 5점 내기로 진행하기로 한다. 1:1 정면 승부의 단식경기가 먼저다. 그 시작은 송덕빈 부장과 손동조 차장의 대결이다. 팀원들의 응원을 받은 이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팽팽한 랠리를 이어간다. 뒤이어 서재필 차장과 박호석 차장 그리고 이덕수 원전안전센터장과 김상은 팀장의 경기도 펼쳐졌다. 아슬아슬 네트 위로 공을 살짝 넘기는 정교한 움직임, 화려한 드라이브(Drive)와 스매시(Smash) 기술이 오가는 사이 청룡팀이 2:1로 먼저 승리를 챙겼다. 짧은 경기 시간인데도 벌써 땀이 흥건할 정도로 탁구는 운동량이 상당하다. 또한 탁구는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다. 회원들은 탁구를 통해 일상에 기분 좋은 변화를 맞이했다. 이덕수 원전안전센터장은 온몸으로 그 변화를 체감하는 중이다. “실제로 꾸준히 탁구를 하면서 난치병을 치유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래에 비해 젊게 살면서 체력도 유지할 수 있고요. 몸은 물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박호석 차장은 탁구에 입문한 후 한 달 만에 8kg을 감량하기도 했다. 손동조 차장은 타 부서



사람들과 한데 어울리니 직장 내에서 한결 수월하게 협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아내의 권유로 시작한 송덕빈 부장은 자연스러운 경쟁의식과 동료애를 바탕으로 탁구에 진심이 된 케이스다. 회원들은 저마다의 방식과 이유로 가장 작은 공이 선사하는 일상의 크나큰 행복을 누리는 중이다.

### ‘경쟁’ 아닌 ‘화합’으로 동료애 불끈!

잠간의 휴식 후 복식 경기도 진행됐다. 2:2로 진행된 경기는 더욱 역동적이고 속도가 빠르다. 서재필 차장은 탁구의 매력으로 민첩한 움직임을 손꼽았다. “순간적인 동작과 기술을 구사하면 짜릿한 쾌감이 밀려오죠.” 얼마나 지났을까. 접전이 이어진 끝에 이번에는 영보이팀이 승리했다. 승패에 상관없이 모두의 얼굴에 해사한 미소가 번진다. 김상은 팀장은 탁구야말로 진정한 화합의 스포츠라고 강조한다. “조그마한 공에 때로는 함성을 지르고 때로는 탄식이 나오기도 하지만 탁구를 통해 화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상대 팀이 잘 못 해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곤 하지요.” 오늘의 대결은 단식과 복식 통틀어 공평한 무승부로 끝이 났다. 한국전력기술 탁구동호회는 올해 김천시장배 대회 우승과 신입회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6명의 회원은 탁구를 통해 일상을 더욱 윤택하게 누릴 것을 제안하며 공약도 내걸었다. “탁구용품 구매 지원, 개인 지도, 3개월 이내 5kg 감량 약속 등 입회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탁구에 도전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즐거움과 건강을 선물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동호회를 수식하는 말이다. 이들에게 승패와 점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함께 어울려 좋아하는 일을 오롯이 즐기는 것이야말로 직장생활을 즐기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이들의 유희하면서도 박력 넘치는 드라이브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E&C

함께라서 좋았던

# 지금 그리고 다시 꺼내 보고픈 순간

에너지사업운영실 사업운영팀 장승호 차장의 가족사진

## 제주살이 기록한 페이지

글. 김민선 사진. 고인순

가족은 친족관계만이 아니라 '식구'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시간을 공유한다.  
아이들의 성장을, 부모의 나이 듦을 서로 바라보며 지지하고 응원한다.  
그 과정에서 정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일 터.



장승호 차장 가족의 시간 중 4년이라는 시간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주살이'로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이다.  
낯설고 설렘이 공존해 온 시간, 그 시간이 이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당시 일곱 살, 아홉 살 두 아들과 함께 할  
 제주살이를 오롯이 감당해 준 사람은 아내다.  
 어린아이를 설득하고 돌보며 함께 적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고군분투했을 것이다.  
 '예쁜' 아내와 기특한 아이들이 있어  
 든든하다는 장승호 차장이다.





잠깐 터를 닦은 이곳을 떠나  
다시 김천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갈 가족

#### 우리 가족이 머문 그곳, 그 순간

'제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돌, 바람, 여자 삼다'라고 하면 '옛날 사람'이다. 굴을 빼놓을 수 있을까. 사시 사철 맛 좋은 감굴, 밀감들이 자라나고, 가정집 정원과 담벼락을 장식하는 것도 굴이다. 그래서 제주살이 기록 또한 굴밭에서 장식했으면 했다. 감굴보다 크기도 크고 당도도 높은, 2월 제철을 맞은 천혜향이 주렁주렁 열린 한 감굴체험농장에서 장승호 차장 가족을 만났다.

유치원과 학교에서 감굴체험을 해 보았다는 하준이, 현준이는 부지런히 수확을 했다. 하준이는 신중하게 수확할 천혜향을 고르는 한편, 현준이는 무조건 큰 천혜향을 고르는 것이 같은 배에 나왔어도 아주 다른 형제의 모습이다. 아이들이 굴을 따는 모습을 보며 장승호 차장은 "크고 맛있는 굴을 따겠다고 집중하는 모습이 귀여워요. 아빠, 엄마 도움 없이 하는 모습도

대견스럽고요. 문득 아빠의 결정에 낫선 이곳, 제주에 잘 따라와 주어 고맙고,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사뭇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 여행이 아닌 삶으로 살아온 제주

올해 만 3년 차 제주살이를 한 장승호 차장 가족. 지난 제주살이가 어땠는지에 대한 물음에 장승호 차장과 아내는 "지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갔다"라고 답했다. 장승호 차장은 한국전력기술의 신재생사업 중 한림해상풍력 PF 및 건설 업무를 지원했다. 해상풍력 분야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그의 의지에 아내도 제주살이를 결심하며 지지를 보냈고 2021년 제주도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 제주도에 와서 1년 6개월 정도는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바다에 해 뜰 때 가서 해 질 때 오기도 하고, 돌고래도 보고,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도 다녀왔는데, 현준이는 화장실을 가느라 정상을 코앞에 두고 올라가지 못한 '웃픈' 에피소드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장승호 차장의 말이다.

아내는 "우리 가족은 산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처음 이사한 집은 한라산이 잘 보이는 집이었는데 여행이 아닌 삶으로 한라산의 사계절을 보았던 게 좋았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단점이자, 가족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요. 이제는 좋은 친구들과 이웃을 만나 적응도 잘하게 되었고, 헤어질 생각을 하니 아쉽기도 하네요."

#### 또 다른 시간을 지나는 가족을 응원하며

잠깐 터를 닦은 이곳을 떠나 다시 김천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갈 가족. 다시 돌아가는 길이지만 지나온 시간에 대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시간과 경험을 허락해야 할 것이다.

"내년이면 큰아이의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돼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전학을 갔고, 형의 그런 모습을 보며 둘째도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죠. 저도 여기서 경험한 풍력 관련 업무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이도, 저도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다시 정착해야 하는 시간을 지나며 우리 가족은 함께 감사하며 건강하게 이겨낼 거라 생각합니다." **EXC**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한라산을 원없이 보고 바다에 오랜 시간 머물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다시 김천으로 돌아가서도 가족이 함께  
더 감사한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 우리 가족 최고 여행지, 뉴질랜드 9박 11일간의 여정

신비한 세상,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여행으로 이어진다. 삶을 재충전하고 힐링하는 소중한 시간, 이런 귀한 시간을 건강한 때에 가족과 함께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우리 가족에게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다이내믹하고, 다양한 화젯거리와 추억을 만들어 준 곳, 뉴질랜드 여행을 전하고 싶다.

글·사진: 홍수철 원자력총괄기술처 배관기술실 부장



## 뉴질랜드에서의 위시리스트

뉴질랜드는 세계 자연유산, 번지점프의 발상지, 빙하, 세계 3대 트래킹 코스라는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여행지다. 특히 뉴질랜드의 12~2월은 여름철 날씨와 기온이 이어져 여행객들로 붐비는데 우리 가족은 2023년 1월 9박 11일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었다. 퀸스타운에서 여행을 시작,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마치는 노선을 정하고, 가족 각자 뉴질랜드에서 해보고 싶은 일들을 나열해 보았다. 우리 가족은 패러글라이딩, 크루즈, 하이킹, 와이너리 투어, 체리 따기 체험, 블루 펭귄 서식지 가보기 등을 꼽았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라벤더 팜, 와이너리, 와나카 호수였다. 향긋한 라벤더의 보라색 물결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에서 세틀랜드 조랑말, 알파카 등이 풀밭에 앉아 한가로이 하루를 시작했다. 여기에 포인트로 보라색 트랙터를 가져다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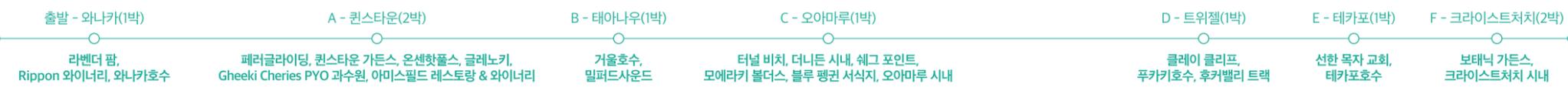
## 무릉도원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사전 예약을 통해 Rippon 와이너리를 방문했고, 여섯 종류의 와인을 무료로 맛볼 수 있더니 '따봉'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식탁 다리로 리모델링한 와인통마저 멋있는 Rippon 와이너리를 빈손으로 떠나기가 아쉬워 1~2명의 와인을 구입했다. 그리고 들린 와나카호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워 보이는 나무 한 그루의 운치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주왕산 주산지의 왕버들나무도 연상됐다. 그리고 본격적인 뉴질랜드 여행의 시작, 퀸스타운에 도착했다. 곤돌라를 타고 전망대에 오르면 퀸스타운 시내와 와카티푸호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루지 타는 곳, MTB길, 등산길이 조성되어 있어 사람들이 많아 북적거렸다. 뉴질랜드 일정 중 퀸스타운만

1 — 전망대에서 바라본 퀸스타운  
2 — 라벤더 팜의 포인트, 보라색 트랙터



### 홍수철 부장의 뉴질랜드 여행 루트





3 — 터널 비치로 가는 길 4 — 온센핫풀스는 무릉도원 5 — 블루 펭귄 6 — 보태닉 가든스의 장미 정원 7 — 조각품 같은 모에라키 볼더스



이동하면서 해식 아치가 그림처럼 펼쳐지는 터널 비치, 바다사자가 출몰하는 웨그 포인트, 공룡알처럼 생긴 암석이 군데군데 깔린 모에라키볼더스, 밤이 깊어지면 블루 펭귄이 바닷가에서 육지로 올라와 자기 집을 찾아간다는 서식지도 찾았다.

고대 빙하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 클레이 클리프는 뾰족한 침탑 모양으로 긴 병풍처럼 펼쳐진다. 한라산 병풍바위가 연상되었다. 후커밸리트랙은 왕복 3~4시간이 걸리는 하이킹 코스로 트랙 정상 의 풍경을 상상하면서 걸었다. 종착지인 후커호수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타즈만 빙하를 볼 수 있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쏟아져 내려 은하수 별빛을 볼 수 있던 선한목자교회도 기억에 남는다. 마지막 일정은 보태닉 가든스와 크라이스트처치 시내를 둘러보았다.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장소, 바로 보태닉 가든스에서 초록의 나무와 아름다운 꽃을 보며,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한 뒤 꿈 같던 뉴질랜드 일정이 마무리됐다.

### 뉴질랜드의 미식은?

여행길에 미식이 빠지면 섭섭하다. 후커밸리트랙 가는 길에 푸카키호수 방문자센터에서 맛본 연어는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이였다. 호숫가에서 연어를 팔다니... 빙하에서 자란 연어의 맛이 바로 '이런 맛이구나'임을 알게 됐다. 이밖에 현지 식재료로 만든 코스 요리(11종류)와 와인 페어링(6종류)을 곁들여 식사하는 아미스필드 레스토랑&와이너리, 독특한 플레이팅과 풍미도 기억에 남는다. 또한, 햄버거를 줄 서서 사는 퍼그버거의 사이즈도 인상적이었고,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이 유명한 파타고니아의 맛은 달달구리 그 자체였다.

내 인생 글귀 '우리 삶에 다음이란 없어'를 떠올리며 한국전력기술훈도 뉴질랜드를 꼭 만끽하길 바란다. **E&C**



2박 동안 머물 것을 결심하고, 삼나무로 짠 원형의 온천탕에 전신욕을 했다. 온센핫풀스의 파노라마 뷰는 감탄이 절로 나와 무릉도원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번에는 Gheeki Cherries PYO 과수원에서 체리 따기 체험을 했다. 고산지대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식감이 부드러운 체리를 체험하는 동안 마음껏 먹으며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 이어 도착한 곳은 글레노키인데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다. 닥트 강변의 한적한 시골 풍경으로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주변 풍경이 거울처럼 호수에 반사된다는 거울호수도 둘러보았다. 흑등고래가 날아오른 태즈먼해에서는 피오르 절벽과 스틸링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에 황홀함을 느꼈다. 밀퍼드 사운드 트레킹은 죽기 전에 걸어야 하는 세계 3대 트레킹이라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뉴질랜드에 다시 방문해 트레킹을 해볼 생각이다. 이후 차로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장소, 바로 보태닉 가든스에서 초록의 나무와 아름다운 꽃을 보며,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한 뒤 꿈 같던 뉴질랜드 일정이 마무리됐다.



# 시각장애 아동들이 점자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드럽고, 딱딱하고,  
까칠하고 우리의 손끝으로  
느껴지는 촉각은 인간의  
감각 중 가장 먼저 발달한다.  
그래서 영아기 아기들의  
인지력과 정서발달을 위해  
'촉각책'을 손에  
쥐어주기도 하는데  
이 촉각책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글 김민선 자료협조 담심포  
사진 고인순

## 우리나라 점자 문맹률 90%

시각장애 아동에게는 다양한 촉각을 경험하는 것이 점자학습의 첫발을 내딛는 시작과도 같다. 점자학습의 두려움이 있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시각장애 아동들도 다양한 촉각의 즐거운 경험으로 점자학습과 점자 촉지 훈련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점자는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만져가며 익혀야 해서 손끝 감각이 살아있는 어린 시절에 배우면 익히기 쉽지만 손끝 감각이 무뎠다면 점자를 배우기가 쉽지 않다.

국내 시각장애인은 약 25만 명 그중 10%만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어 나머지 90%의 시각장애인은 점자 문맹을 겪고 있다.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의 문해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며 학업은 물론 취업의 기회 증가까지 이뤄진다.

## 국내 시각장애 아동의 교육기회를 위해

시각장애 아동들은 비시각장애인과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교과서와 연계된 보조교구 재가 필요하기에 교구재 보급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시각장애 아동들의 점자촉각책과 교구재 및 장난감을 개발하는 기업인 담심포는 2006년 국내에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촉각 동화책이 한 권도 없다는 소식을 듣고 국내 최초의 점자촉각 동화책 <아기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담심포에 따르면 국내 시각장애 아동에게 보급하기 위해 전국의 바느질봉사자들과 함께 점자촉각책을 만들어 전국의 맹학교와 점자도서관에 점자촉각책을 무상으로 기증했다. 이때 바느질 봉사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엄마이자 해당 경력 보유 여성 혹은 공예가였다. 이들의 활동을 기점으로 점자촉각책 시계놀이, 날씨놀이, 직업군 만들기, 교통안전 놀이, 단어카드, 달력 등 시각장애 아동성장 발달과 학습 수준에 맞는 교구재를 보급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중이다.

## 완성된 점자 촉각책은 맹학교와 점자도서관에 무상보급

'함께해요' 코너를 통해 한국전력기술인들이 만들어 불 KIT는 날씨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점자 단어를 익힐 수 있는 점자촉각책 날씨놀이이다. 기본적으로 날씨, 계절을 점자와 촉지로 학습하고 아이 혼자서도 점자촉각책을 통해 학습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KIT가 구성됐다. 점자와 그림이 입체적으로 인쇄된 원단에 바느질을 해 새겨진 형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책의 각 장을 엮으면 된다. 인쇄된 원단은 페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 KIT 하나에 10개의 페 페트병이 재활용된 셈이다. 한국전력기술인이 만든 이 점자 촉각책 또한 전국의 맹학교 혹은 점자도서관 등에 무상보급되어 한 시각장애 아동의 학습과 삶에 도움을 줄 것이다.

## NEXT

지구사랑을 위해 친환경 생활하기에 도전하실 분을 찾습니다



업사이클 KIT에 들어있는 친환경 생필품으로 친환경 생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신청 마감 4월 9일

신청 방법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신청서 작성 온라인폼으로 이동합니다.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세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참고사항 사내 임직원만 참여(신청) 가능, KIT 사용 후기 작성과 사진 제공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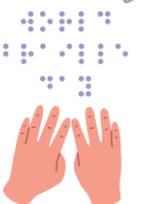


신청하기

## 점자촉각책이란?

점자촉각책은 다양한 재료로 그림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손끝 촉각으로 점자와 그림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도서. 손끝 감각이 민감한 유아기에 만지고, 놀면서 촉지로 친숙하게 점자를 접할 수 있는 점자촉각책이 필요하다.

## 점자촉각책의 필요성



국내 시각장애 아동의 수 (2011년 기준)

약 2,000명

점자촉각책 1종당 1,000권 이상 필요

점자촉각책의 보급과 점자교육이 함께 이뤄지면 점자문해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서로의 손길을 연결해

# 희망을 전합니다

“3D 점자책을 디자인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미래성장사업처 윤재성 부처장

**Q. 자기소개와 함께 참여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좋아하고 시각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저는 윤재성 부처장의 둘째 율해은입니다. 아버지 회사의 사보를 보다가 지난 호 '함께해요'에 실린 신발꾸미기를 보게 되어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Q. 점자에 대해 평소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엘리베이터 버튼에 울퉁불퉁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점자라고 인식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번엔 키트와 동봉된 점자일람표를 들고 엘리베이터 버튼과 비교해 보니 올라가는 버튼에 새겨진 점들이 '상(上)'이라고 쓰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참여해 보신 소감은요?**  
점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진 점자로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점자책이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전해져 손으로 계절을 느끼게 하고 하늘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Q. 이번 참여를 계기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시각장애 아동들도 동등하게 읽고 배울 수 있는 점자책이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더 멋진 세상을 보고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3D 점자책을 디자인 해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였어요”



상생노무처 홍보팀 이영재 사원

**Q. 자기소개와 함께 참여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상생노무처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홍은영 팀장입니다. 귀엽고, 착하고, 애교 많은 초등학교 두 아들, 예준이·도준이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사보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라 주로 직원 참여를 독려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함께해요' 코너가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획인 것 같아 직접 참여해 보고 싶었습니다.

**Q. 점자에 대해 평소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일상에서 점자를 접하긴 했지만, 시각장애인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Q. 참여해 보신 소감은요?**  
아이들에게 점자책 만들기를 설명해 주었더니 빨리 만들어보고 싶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어 기뻐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한 모습으로 한땀 한땀 정성을 다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부모로서 행복한 시간이었고, 아이들도 너무나 뿌듯하고 즐거웠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Q. 이번 참여를 계기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함께 배포된 설명자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이 90%라는 사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움과 감동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자책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어요”



상생노무처 홍보팀 이영재 사원

**Q. 자기소개와 함께 참여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재 사원의 누나이고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동생 방에 있던 점자 촉각 단어책 만들기 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자기한 캐릭터에 사로잡혀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만들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점자에 대해 평소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시각장애인의 글자라는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Q. 참여해 보신 소감은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밌어 보여서 참여를 시작하였지만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교구재라는 의미를 알고 나서는 잘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제가 만든 교구재를 사용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점자책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이번 참여를 계기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점자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며 특히나, 점자를 통해 수학적이나 그림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놀랐습니다. 또 점자는 글자와 마찬가지로 나라별로 다르게 표기되며 북한의 점자도 따로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처럼 점자는 사람과 세상을 연결해 주며 시각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참여하고 싶은 정도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상생노무처 상생경영팀 신채은 사원

**Q. 자기소개와 함께 참여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48기 신입사원 신채은입니다. 현재 상생노무처 상생경영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보에 바느질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구재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만든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무척 기대했습니다.

**Q. 점자에 대해 평소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그림책이 없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Q. 참여해 보신 소감은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저 또한 시각장애 아동들이 하나의 놀이처럼 점자를 배우고 즐기는 것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 뿌듯했습니다. 동영상도 참고하며 만드니 손쉽게 교구재를 제작할 수 있었고,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은 정도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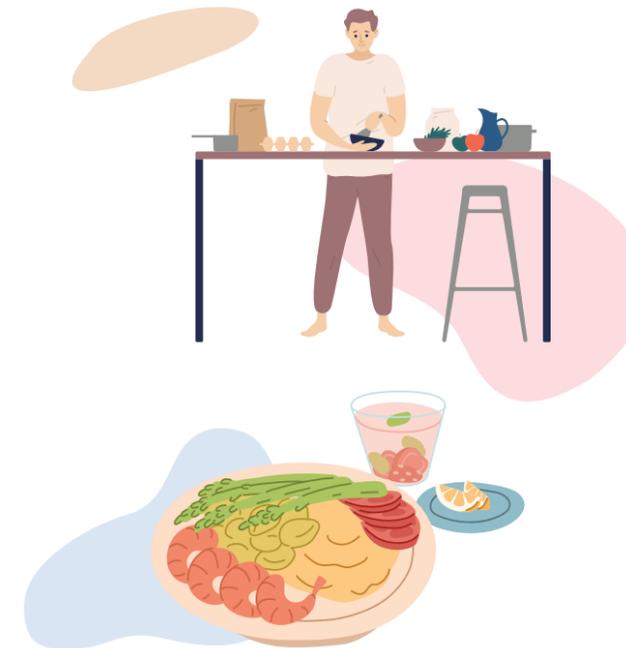
**Q. 이번 참여를 계기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국내 시각장애인이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세가 넘어가면 촉지가 무뎠어 점자를 배우기 어렵기에 어릴 때부터 점자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E&C**

# Health Care

## 참는 건 그만!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최근, 2030 사이에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이전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음식을 참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거나 한다. 즉, 지속가능 건강 관리를 추구한다.

글. 강태성



지켜 나가는 것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들은 식단 및 운동 선택에 있어서도 보다 주의를 기울인다.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와 같이 다이어트 하면 떠오르는 식단에 갇히기 보다 영양 성분과 본인의 식습관을 고려해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한다. 운동도 1일 체험권을 이용해 경험을 한 뒤 나랑 맞는 운동을 택한다. 이처럼 취향을 찾아 자신만의 루틴을 정해 진행한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본인의 식단 혹은 운동 과정을 기록하며 동기부여를 한다. 본인의 SNS 계정에 건강 관리 과정을 공유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만들고 지켜내는 모습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성취감과 자기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 꾸준한 동기 부여와 지속가능한 운동을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하기도 하며, 스포츠 크루에 가입하거나 건강 챌린지에 참여해 자신의 의지를 다지기도 한다. **E&C**

### 합한 건강관리, 퍼스널 헬스케어

요즘 MZ의 건강 관리는 지속성이다. 자신과 맞지 않는 운동법과 식단을 무작정 쫓으며 쉽게 포기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한 헬스케어를 실천한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떠오르는 것이 퍼스널 헬스케어다. MZ세대 사이에서 건강 관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며 좋은 식재료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스스로에게 대접하는가 하면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기성품보다 맞춤복이 몸에 더 잘 맞는 것처럼 건강 계획도 자신의 필요와 목표에 맞게 세우는 것이다. 가령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질병 위험, 영양 요구 사항, 약물 반응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설명처럼 개인의 건강 지표를 파악함으로써 개인에게 고유한 건강 목표와 계획을 세워 건강을 관리하려고 한다.

### 취향에 딱 맞는 루틴 설정

최근 헬스케어의 포인트는 타인의 비법에 의존하기 보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식이요법, 운동 루틴을 찾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루틴러'들은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수립하기 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가령, 하루 물 1L 마시기 등)를 세우고

### 시작에 도움을 줄 APP

#### 동기부여 앱 '챌린저스'

건강 관리는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챌린저스는 습관 형성을 목표로 참가비를 내고 일정 기간 해당 목표 인증 사진을 찍어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돕는다. 100% 달성자에게는 상금을 주며, 85% 미만이면 참가비가 삭감된다. 리워드가 쌓이는 만보기, 건강 스토어 기능도 있다.

#### 초개인화 영양 관리 플랫폼 '필라이즈'

AI 기술로 식단, 영양제, 체중, 걸음 수, 수분 섭취 등을 관리한다. 사용자는 오늘 먹은 식단에 맞춤 분석을 받고 점수로 확인할 수 있다. 섭취 영양제 조합 분석을 하고, 필요한 맞춤 영양제를 추천해 주는 기능도 탁월하다. 그 외 섭취 알림 서비스가 있으며, 영양제 리뷰를 확인할 수 있다.

#### 운동 일지 앱 '번핏'

최근 5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번핏은 헬스 인구를 위한 앱이다. 번핏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운동 루틴 기능으로 그 날 할 운동의 종류와 무게, 횟수를 계획하고, 실제 수행한 운동을 기록하는 일지와 같다. 따라서 쉽고 체계적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



# 앞으로를 위한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

3월, 사랑과 응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책이 주는 메시지를 소개한다. 개학, 입학 앞둔 자녀와 그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3월은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설렘을 준다. 잠시 무겁고 괴괴한 건 내려두자. 그리고 새롭게 그 빈자리에 사랑과 응원을 채워보자. 정리, 편집실



윤어림 글, 안영달 그림  
위즈덤하우스 출판

세상을 누비며  
훨훨 날으렴.  
그러다 힘들면  
언제든 찾아오렴  
다시 날아오를  
힘이 생길 때까지  
엄마가 꼭  
안아줄게.

###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아이에게 전하는 엄마의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다. 성장 과정 속에서 아이에 대한 엄마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 해주는 내용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해도, 엄마는 저를 사랑하고, 언제나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걸 알려준다. 아이를 위한 그림책이지만, 그 내용과 메시지는 어른에게도 감동을 준다. 아이와 부모, 가족이 함께 읽는 책.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김종원 글, 나래 그림  
상상아이 출판

“다 괜찮아;”  
“나라서 소중한 거야”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로 하루하루가 아름다워질거야.

###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따스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만들어내는 관계. 맑고 투명한 하루를 만드는 말 한마디를 담았다. 어느 다른 순간보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고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힘을 만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삶의 순간을 아름답게 바라볼 힘을 주고 싶다면, 그 건넌 한마디가 오늘 하루, 삶의 순간을 바꿀 것이다.



김은주 작가, 양현정 그림  
허밍버드 출판

이 우주에 나 홀로, 라는 말은 아주 외롭다. 이 우주에 단둘이, 라는 말은 아주 낭만적이다.

### 1cm+me(일 센티 플러스 미)

“인생이 긴 자라면, 우리에게 1cm만큼의 ( )가 필요하다”는 독특한 부제를 달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1cm>. 카피라이터 특유의 기발한 발상과 관찰력을 재기 발랄하면서도 인상적인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어 찬사를 얻었다. <1cm+me>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확장판으로 ‘나’에 집중한다. 작가는 더도 덜도 말고 딱 1cm만큼 내 인생에 더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 나선다. 그 여정에서 1cm만큼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기도 하고, 세상을 보기도 하며, 서로에게 다가가기도 한다.



전승환 글  
북로망스 출판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사람입니다.

###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일수록 다정함과 따뜻함의 언어와 격려와 응원의 단어가 필요하다. 삶을 환하게 물들이고 싶을 때, 따뜻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을 때, 우리에게 희망과 치유의 책 읽기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할 빛나는 문장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ESC

## Message in a Book

# E&C NEWS

## 2024 제22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2위 수상



회사는 2월 22일 63빌딩에서 진행된 GPTW(Great Place to Work) 코리아 주관 2024 제22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2위를 수상했다. 외국계 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체 중 최고 순위이다. GPTW는 미국, 유럽 등 세계 150개 국가와 공동으로 기업의 신뢰경영을 평가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한다. 회사는 참가기업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신뢰지수를 바탕으로 수평적 조직문화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회사는 '글로벌 ESG 인권경영 인증'을 획득, 개인 부문에서는 김성암 사장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워킹맘-대한민국 GPTW 혁신리더'에 임직원이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 유니슨과 육상풍력 발전사업 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



회사는 1월 31일 국내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유니슨과 국내 육상풍력 발전사업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풍력 사업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육상풍력 사업을 공동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내 풍력발전 사업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니슨은 풍력발전기 제조와 공급을 비롯하여 풍력발전 단지개발 경험을 다수 보유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 영덕풍력, 강원풍력 등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참여하였고, 10MW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무부하 운전 성공하여 해상풍력사업에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 Adhi Karya社와 인도네시아 발전사업 협력협약 체결



회사는 1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Adhi Karya와 인도네시아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성암 사장과 Adhi Karya의 엔투스 아스나위 목슨(Entus Asnawi Mukhsan)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가스엔진발전소를 포함하여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발주될 발전사업의 정보 공유, 공동 발굴, 상호협력 방법 등을 규정하여 양사 간 효과적인 협업과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Adhi Karya는 인도네시아 건설 공기업으로, 지난해 회사와 공동으로 가스엔진발전소 사업을 수주했다.

## 정보보호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27001 사후심사 통과



회사는 1월 9일부터 18일까지 KSR인증원으로부터 국제 표준 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27001) 인증 사후심사를 받았다. 원자로설계개발본부(9일), 본사(10~11일), 한빛원전현장(18일)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사 정보보호경영시스템이 국제 표준 기준에 적합한지, 법규 및 규제사항, 각 보안 프로세스별 지속 실행 효과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회사의 정보보호경영시스템이 국제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회사는 지난 2014년 ISO27001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이후, 10년간 연속으로 인증 갱신심사와 사후심사를 통과하여 국제 표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 2023년 신입사원 집합교육 실시



'2023년 한전기술 신입사원 교육'이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2023년 12월 29일 입사한 118명의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사의 비전·가치에 대한 이해와 소통·협력 능력 향상을 중점으로 기획되었다. △임원특강 △회사 소개 △비즈니스 매너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입사원들은 이를 통해 한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마인드를 함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 종료 후 신입사원들은 직무실습교육, 부서배치 및 현업병행교육 등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된다.

## 참사랑봉사단 재가장애인가구 도배 및 환경정리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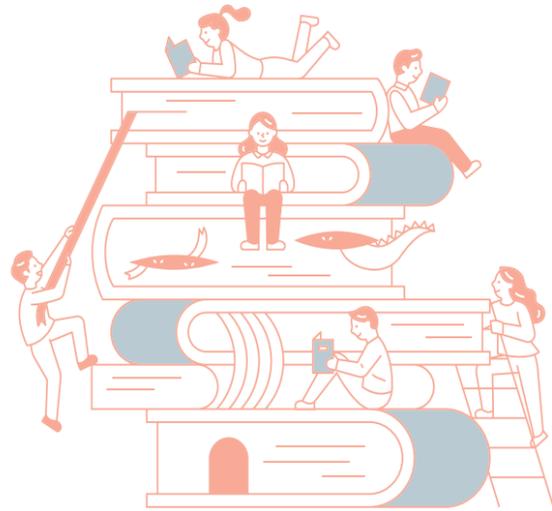
경영관리본부 참사랑봉사단은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봉사단과 함께 재가 장애인가구에 도배 및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대상자는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재가장애인으로서 생활하던 무상임대 주택이 철거되자 긴급히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어 도배 등의 환경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참사랑봉사단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쓰레기를 정리하고 주택내부 도배를 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김천시장애인복지관 안민 관장은 봉사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봉사단을 격려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회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독자참여 마감 4월 30일까지**

QR을 스캔하시면 독자의견과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KEPCO E&C Family>와 함께해요~



## 사보참여



QR을 스캔하시면 원데이클래스, 가족사진 등 사보 참여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실 수 있습니다.

## 독자의견

사보를 보고 좋았던 기사,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개선해야 할 점 등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요' 코너를 보면서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사보를 통해 함께하는 세상에 대해 알려줄 수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 윤재성(미래성장사업처)



'한기 트레블러'를 보면서 2014년 우리 부부가 한라산을 등반했던 추억이 떠올랐어요. 사원 네 명이 함께 경험한 여행기로 활력을 얻었습니다.

● 김병훈(외부 독자)



'특 맛보기'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육각형 인간은 모두가 닮고 싶은 인간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나 자신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 최영수(외부 독자)



'우리 동호회 어때'를 읽으며 동호회의 활발함도 느꼈습니다. 다양한 개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다져진 무대로 한국전력기술인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 최용범(외부 독자)



마지막에 실리는 'E&C 뉴스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새해 더 유용하고 임직원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보가 되길 바라며, 사보를 통해 자부심도 느꼈으면 합니다.

● 김상철(외부 독자)

# 읽을수록 흥미롭고, 참여하면 더 재밌는 <KEPCO E&C Family>

2024년 더 재밌고 풍성한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인의 다채로운 모습이 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동동튀는 톡

2024년 트렌드를 테마로 한국전력 기술인만의 통통튀는 생각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매호 어떤 트렌드로 구성원을 만날지 기대해 주세요.

## 클래스북

원데이클래스로 함께라서 더 즐거운 시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의 이름을 적어 신청해 주세요.

## 미음고민 상담소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고민되는 순간의 명쾌한 전문가 답변을 전합니다. 익명으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 한기 트레블러

나만 알고 싶을 만큼 좋은 여행지, 한국전력기술인에게만 공개합니다. 사진과 여행지 소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우리 동호회 어때?

우리 동호회 정말 좋는데 홍보할 방법이 없다면, <KEPCO E&C Family>에 출연해 주세요. 동호회 소개와 멋진 모습을 담아드립니다.

## 함께해요

행복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말, '함께해요'에서 느껴보세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KIT를 보내드립니다.

## 가족의 기록

일상 속 기념일이 되는 순간, 특별한 가족과의 추억을 프레임에 담아드립니다. 가족사진 촬영을 신청해 주세요.

## 입하게

트렌드에 뒤처질 수 없는 한국전력 기술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요즘 '입하게'는 트렌드를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합니다.

### 사보 참여 방법

홍보팀 박다경 대리 054-421-3039 sky03tree@kepc0-enc.com